

2025 새해 이렇게 박홍률 목포시장

“해상풍력·친환경선박 등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신안과 통합 속도감 있게 추진 국제 마른김 거래소 개장 등 수출주도형 김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속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시민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 1조 2800억원을 확정하고 민생안정·속원사업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해상풍력산업·친환경선박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기술개발을 위한 1760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남향 친환경선박 교육연구기구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중소형 선박 수리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와 신안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히 미래인재 양성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방침이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의 수산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은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박 시장은 수출주도형 김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마른김 거래소 개장과 해수취수시설 3호기 신설 등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새로운 지역 특화산업으로 어묵산업을 육성해 목포의 수산업 경쟁력을 높여 전국 제1위 수산식품수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자신했다.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과 북항노출공원 명소

화사업, 남향재개발, 목포대교 야간경관 사업,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북항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소규모 항만재생사업과 고향도 바다 낚시 공원,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1천만 관광객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목포형 문화도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향토음식진흥센터, 기독교 근대역사관, 나전칠기 열린 수장고 등 새로운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목포뮤지컬페스티벌 등 대규모 메가이벤트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이를 통해 맛의 수도 목포, 활기찬 스포츠도시,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대외적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르신 건강지원, 차대 예방, 공공

의료시설 확장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준비했다.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와 도전의 터전을 제공한다. 시메타버스 센터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연계해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취·창업을 지원한다.

또 국비 490억원을 투입해 목포역을 신축하고 있다. 올해 시설계획을 마치고,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불산단 대교 건립과 차세대 교통수단 트램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과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도시재생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초심불망(初心不忘)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이 제언하는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선 8기 계획들을 핵심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전국 첫 1000억 해상풍력 군민펀드 조성한다

루트에너지·우이해상풍력과 협약

신안군은 최근 루트에너지(대표 윤태환), 신안우이해상풍력(대표 이윤안)과 전국 최초 1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신안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오션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신안 해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390MW(15MW×26기)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은 지역주민과 송·변전설비 인근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안군민펀드 모델 설계 및 운용 ▲신안군민펀드 가입자에게 조달금리 제공 ▲펀드 홍보 및 조성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으로, 수익률 연 13%의 펀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고고식과 부유식을 포함한 발전단지 30개 조성 시 1인 최대 1억 2000만 원 투자로 연간 약 15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신안군과 루트에너지, 신안우이해상풍력(주) 간 1000억원 해상풍력 군민펀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면서 “해상풍력 군

민펀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ee@kwangju.co.kr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새해 들어 기탁 줄이어

100억 모금 목표 67억원 채워

새해들어 진도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진흥기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진도지회(지회장 채형진)에서 100만원, 진도군 색소폰연주자 협회(회장 김중현)에서 50만원을 기탁했다.

또 고미경 대표(진도문화예술교육원)와 이희춘 회장(진도북놀이보존회)이 각각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진흥기금을 기탁했다.

특히 진도북놀이보존회 이희춘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8년 동안 해마다 100만원을 기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약 67억원이 모금됐다.

진도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진도의 문학·미술·음악·무용·국악 등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도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문화진흥기금 기탁 행렬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공사 끝낸 구시터널 입구.

국도 13호선 해남 현산 구시터널 개선 완료

경사도 줄여 겨울철 사고 우려 제거

겨울철 잦은 사고 발생으로 우려가 컸던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터널의 개선공사가 완료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산 구시터널은 국도 13호선에 위치한 터널로 관리하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가 3억원을 들여 개선사업을 했다.

이번 사업은 노면의 경사도를 바로잡아 배수 및 미끄럼 저항을 향상시켰고, 터널 내 배수로 정비

와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을 보강했다.

해남군은 겨울철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구시터널 개선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사업 추진을 끌어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산 구시터널은 지형상 겨울철 눈이 잘 녹지 않아 사고가 빈발했다”면서 “이번 개선 공사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15일까지 모집

아이디어 제안·봉사활동 등 5명

영광군은 ‘정책 아이디어 발굴·제안’, ‘군정 정책 참여·정책 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군민이 공감하는 적지만 가치 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과 군정 참여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

구 신청할 수 있다.

총 5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하며 지원 방법은 소통24 누리집(sotong.go.kr)에 접속 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2027년 2월28일까지 2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복지과(061-350-5808)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물 설맞이 기획전

한우 세트 등 223종 23일까지 최대 30% 할인

영암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으뜸 품질의 영암 농특산물을 최대 30%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영암물 2025년 설맞이 기획전’을 연다.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할인 행사는 한우 선물세트를 포함해 영암군 농·축산물, 가공품 등 223종의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한다.

구매자에게는 20% 할인 쿠폰을 1인당 2장씩 나눠주고, 일부 특가 상품과 명절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10% 추가 할인을 실시해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영암물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3000원의 회원가입 적립금을 주고, 댓글 ‘2025년 영암물에서 새해뽐는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쿠폰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선착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빠른 참여가 필수”라면서 “영암물에서 전국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로 설 명절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폐현수막 재활용 해양쓰레기 수거 봉투 제작



완도군이 폐현수막을 해양쓰레기 수거용 자루로 활용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1533장 제작 읍·면 무료 배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현수막이 해양쓰레기 수거용 자루로 활용됐다.

완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폐현수막을 해양쓰레기 수거용 자루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은 각종 선거나 광고에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다.

완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완도옥외광고협회와 공동으로 지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폐현수막을 수거했다.

이어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와 연계해 폐현수막을 해양쓰레기 수거용 자루(1533장)로 제작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루는 완도 각 읍·면에 전달돼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활용된다.

완도군은 환경 캠페인을 통해 폐현수막 자루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많은 폐현수막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데 이를 재활용하면 처리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담총괄취재본부장 ejhung@